

# 원스톱 통합 SNS 홍보체계 구축

임실군, 부서별 홍보 통합·숏폼 콘텐츠 확대… 군민 소통 강화 나서

임실군이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정 홍보의 효율성과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로 분산된 홍보기능을 하나로 묶는 '통합 SNS 홍보체계'를 본격 구축하며 군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군은 기존의 단순한 정보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부서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통합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신 SNS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적극 제작·운영해 군민과 관광객이 쉽고 재미있게 군정을 접할 수 있는 디지털 홍보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군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4개의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정소식과 관광·축제·농특산물·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공식 SNS 구독자는 2024년 말 3만 8,103명에서 2026년 6월 말 기준 5만 5,933명으로 약 46.8%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이번 통합SNS 홍보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에 부서와 읍면별로 개별 운영되던 홍보방식을 개선했다. 문화·관광, 축제, 농특산물, 복지, 농업 등 분야별 주요 홍보자료를 사전에 통합 관리하고, 시의성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콘텐츠를 기획회의를 거쳐 공식 SNS를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하나의 콘텐츠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군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군은 디지털 홍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우수 지자체 사례도 적극 벤치마킹한다. 유튜브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충주시를 비롯해 인스타그램 운영이 활발한 울산 남구, 경남 양산시, 전북 군산시 등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임실군민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 제작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SNS 이용자들의 소비행태를 반영해 숏폼 영상과 밈(Meme), 공무원 브이로그, 정책 체험형 콘텐츠, 관광지 감성 콘텐츠 등 재미와 공감, 정보성을 함께 담은 '임실형 콘텐츠'를 확대 제작해 군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기존 관광·축제 중심 홍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밀착형 정책과 군민이야기, 공직자의 현장활동 등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득수 군수는 "디지털 시대에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전달은 물론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합 SNS 홍보 체계를 통해 군정의 다양한 정책과 관광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고,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홍보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전충영 기자

## 외국인 유학생 지역참여 확대 협력

순창군-전주대-전주비전대,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은 3일 전주대학교 및 전주비전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지역참여 확대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3일 전주대학교 및 전주비전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지역참여 확대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순창군, 제2회 양지천 사진공모전 접수 시작

순창군이 양지천과 경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낼 '제2회 양지천 사진공모전' 작품을 이달 3일부터 모집한다. '양지천·경천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두 하천을 배경으로 한 자연경관과 소소한 일상을 사진으로 담아, 주민과 관광객이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작품 접수 기간은 8월 3일부터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순창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역과 연령에 관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또는 팀(최대 3명)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1인(팀)당 최대 2점까지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순창군청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난 7월 31일 국회를 방문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양충모 남원시장, 국회 방문해 현안 해결 위한 지원 요청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난 7월 31일 국회를 방문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 시장은 박지원 국회의원을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국립의 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남원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운영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이 추진하는 '2026년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현장 중심의 국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지난 7월 31일 출국해 오는 8월 17일까지 16박 18일간 진행되며, 남원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24명이 인솔자와 함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호외 중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정규 수업을 듣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다. 또한 학교 활동과 홈스테이를 통해 현지 생활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국제적 감각과 문화적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며 살아있는 영어를 체험하고,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주도성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해외 체험

## 지역 소식통

남원의료원, 2025년 보훈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우수

남원의료원은 '2025년 보훈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이번 적정성 평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매년 전국지정 위탁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적정성,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남원의료원은 '2025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병원 82개 평가대상 기관 중 전북자치도에서 유일하게 보훈 위탁병원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원의료원은 지역 내 보훈환자 및 국가유공자들에게 수도권 못지않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오진규 의료원장은 "이번 우수 기관 선정은 환자 중심의 진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공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장 신뢰받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구강 이동진료 확대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치과의료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구강 이동진료 차량'을 확대 운영하고, '구강사업 거점마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진료 차량은 치과 진료 장비를 갖춘 이동식 차량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읍면 지역을 직접 찾아가 구강검진, 스케일링,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구강이동진료차량을 전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기존 운영 방식을 개선해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주요소사를 통해 선정된 13개 읍면의 52개 경로당을 '구강사업 거점마을'로 지정하고, 해당 거점 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도 함께 구강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에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